

가나 경제 및 에너지 동향 (2024.1.20.-26.)

1. 경제

가. 가나 주요 경제 지표 동향·전망

- (순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 둔화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자회사인 피치 솔루션은 가나의 경제가 금과 코코아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순수출이 감소하고, 올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피치 솔루션은 가나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 개혁 노력은 계속하고 있지만, 올해 말 총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한편, 물가 안정 및 대외채무 조정으로 민간 소비와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 (국세청 1,460억 세디 세수 목표 설정) 오우수-아모아(Ammishaddai Owusu-Amoah) 가나 국세청장은 1.24.(수) 올해 세수 목표를 작년 (1,060억 세디)보다 33.7%가 증가한 1,460억 세디로 설정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를 늘리고 세금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힘.

나. 가나, 제2차‘아프리카 번영을 위한 대화’ 주최(1.24.-27.)

- 가나 비영리 단체인 African Prosperity Network(APN)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 및 가나 정부와 함께 AfCFTA의 성공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아프리카 번영을 위한 대화(African Prosperity Dialogue)’를 개최함.
 - * 동 행사는 ‘아프리카 번영 실현: 생산, 부가가치, 교역(Delivering Prosperity in Africa : Produce, Add Value, Trade)’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가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급 인사, 주요 기업인, 정계 및 학계 인사 등 참석
-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1.25.(목) 개막연설을 통해 가나가 모든 아프리카가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위한 검토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올해

말 본인의 임기 전까지 사람·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AfCFTA를 통한 경제 통합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약함.

- 또한,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2050년까지 지구상 9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65%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라고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운송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혁신 및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이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고 부언함.

다. 바우미아 부통령,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BizBox’ 출범식 참석

- 바우미아 부통령은 1.22.(월) 청년 25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BizBox(Business in a Box)’ 출범식에 참석하였으며, BizBox는 가나기업청(GEA)과 마스터카드 재단이 지원하는 5,500만불 규모의 사업으로, 2027.4월까지 청년 기업가 정신 육성 및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바우미아 부통령은 BizBox가 가나 정부의 ‘Young Africa Works’ 이니셔티브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난 2020-22년간 약 9만4천 명의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함.

라. 가나 정부, 중국 기업과 ‘상호 번영 파트너십 대화’ 개최(1.19.)

- 가나 정부는 1.19.(금) 중국 기업과 협력을 도모하고 아프리카의 투자 선호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상호 번영 파트너십 대화’(Mutual Prosperity Partnership Dialogue)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는 켄 오폴리아타(Ken Ofori-Atta) 재무장관, 코비나 하몬드(Kobina Hammond) 통상산업부 장관, 요피 그랜트(Yofi Grant) 투자진흥청장, 루 쿤(Lu Kun) 주가나 중국대사, 중국 기업인 등이 참석함.
- * 오폴리아타 재무장관은 작년 11월 2024년 예산안 발표에서 가나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가나 상호 번영 파트너십 대화’를 출범한다고 발표

- 오포리아타 재무장관은 동 대화 참석 계기 가나를 아프리카 내 투자 선호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경제 회복, 안정적 환율, 금리 완화 등 가나의 유리한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가나 중앙은행의 기업 신뢰도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對가나 투자를 당부함.

※ 중국은 가나의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2022년 가나에 11억불 규모의 해외직접투자(FDI)를 기록하였으며, 가나는 중국의 4번째로 큰 아프리카 수출국(약 79억불 규모)으로 2023년 10개월 동안 양국 교역량은 7.8%가 증가하여 90억불을 기록

- 한편, 해몬드 통상산업부 장관은 중국 기업들이 가나의 무역 법률 및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최근 일부 중국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부적격 시멘트를 생산하여 기준 위반으로 공장을 폐쇄해야 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업 규제 관련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기업 규제 개혁 법안(Business Regulatory Reforms Bill)’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마. 가나 정부, 독일 기업과 ‘상호 번영 파트너십 대화’ 개최(1.23.)

- 가나 재무부는 일련의 ‘상호 번영 파트너십 대화’를 개최하여 경제 회복과 민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23.(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목표로 독일 기업과 동 대화를 개최함.

- 오포리아타 재무장관은 동 대화에서 현재 가나 투자진흥청(GIPC)이 국내외 전략적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법안(Investment Code)’을 개발 중이며, 양국 모두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호 이익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함.

※ 독일은 G20 아프리카 협약을 통해 가나에 21억 유로를 지원하고, 2022년 가나에 3억3,410만 유로의 해외직접투자(FDI)를 기록했으며, 가나의 8번째로 큰 유럽 수출 시장

바. 가나, 테마(Tema)港 확장사업으로 경제 확대 기대

- 가나 정부는 2025.9월 완공을 목표로 테마항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fCFTA를 활용한 수출 주도형 경제로의 도약, 아프리카 해상 무역의 전략적 중심 역할 강화 및 세계 무역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도모중임.

- 또한, 동 사업을 통해 항만 인프라 현대화 및 개선으로 물류 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어, 테마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연간 80만 TEU에서 370만 TEU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5,0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됨.

사. 가나 노동조합위원회, 주거용 전기 부가가치세 부과 정책 철회 촉구

- 가나 노동조합위원회(TUC)는 1.23.(화) 정부에 대해 주거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부과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 정책을 1월 말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 TUC는 2022년에 이미 전기료가 73% 인상된 상황에서 VAT 부과로 전기료가 최소 15%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함.
- 이에, 제1야당 국민민주당(NDC) 대선 후보인 마하마 前 대통령은 노동조합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정부가 주거용 전기에 대한 VAT 부과 정책을 철회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마하마 前 대통령은 동 정책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고, 상품, 서비스 및 교통 운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함.

2. 에너지 · 자원

가. 가나, 폴란드 디젤 기관차 도입

- 가나 정부는 2월 중순 폴란드로부터 최신 디젤 열차 엔진 및 기관차 12대를 도입하여 철도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여객 및 화물 운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폴란드 철도업체인 Rynek Kolejowy측은 가나철도공사(GRCL)가 작년 9월에 주문한 기관차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 가나는 2013년 수립한 『가나 철도 종합 계획(Ghana Railway Master Plan)』을 토대로 215억 규모를 투입하여 총 4,007.6km의 선로를 구축하는 대규모 철도 재건 및 확장사업 추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 확충을 통해 △물

류 및 여객 운송 개선, △경제발전 촉진, △부르키나파소와의 경제 협력 강화 등 목표

나. 가나 공익책임위원회(PIAC), 석유 수입금으로 지원되는 건설사업 중단에 우려 표명

- 가나 공익책임위원회(PIAC)는 정부의 석유 수입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진행 실태 조사 결과, 그레이터 아크라(Greater Accra)주와 센트럴(Central)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인프라 건설사업*이 대금 지급 지연으로 중단되었다고 발표함.

* 그레이터 아크라주의 일부 도로 개보수사업, 센트럴주에 위치한 Anomabo 수산대학 건설사업 등

- 상기 사업들은 2012-22년간 약 1억8,700만 세디의 석유 수입을 지원 받았지만 2023년부터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석유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것을 촉구함.

3. 개발협력 : 가나 고등교육위원회(GTEC), 한국 연세대와 교육 부문 협력 추진

- 가나 고등교육위원회(GTEC)는 한국 연세대학교와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지원하는 '지속가능개발 대학교(UESD) 분소 캠퍼스' 건설사업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양측은 단순히 건물 증축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협력도 추진하기로 합의함.
- 한편, 연세대는 UESD 건설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2025.6월까지 가나 정부에 공식 인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끝.